

치 사

성주사가 자리한 불모산(佛母山)도 울창한 녹음을 이루더니, 어느새 청명한 기운과 더불어 스스로의 결실을 서서히 내보이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창건과 중창의 유래, 그리고 민족과 함께한 오랜 역사에 담겨 있듯이, 성주사는 여태껏 이 지역의 무사 발전을 기원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나아가 역경을 이겨내는 국민의 의지와 국가 평안의 발원을 실천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중시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시는 흥교스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에, 불법홍포에 대한 남다른 원력으로 진력하신 원종스님을 사부대중의 큰 축하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주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큰 걸음을 걷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누는 불교, 행복한 시민을 지향하는 원종스님의 뜻과 같이 창원과 경남의 많은 불자와 시민이 이제 삶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상서로움으로 반기며, 역사와 문화가 수승한 성주사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종합문화공간으로 더욱 흥성하기를 바랍니다.

넓은 포용력으로 중앙과 교구본사의 종무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겸손을 겸비한 너그러운 성품은 지역사회에 향기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람수호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에 베풀겠다는 원력을 실천하여 시대의 요구에 조응하고, 이를 포교선상으로 연결하는 깊은 사려와 분별에도 만전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행가풍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현대에도 훌륭하게 실현하여 지역의 불교 발전이 교구와 종단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대중이 언제나 유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교구본사인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뚜렷하게 하면서 사회에 종교적 책무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교구의 주요한 사찰로서 이러한 본사의 공헌과 노력을 언제나 함께 나누며, 사찰과 불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만의 안위가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간이자, 불자공동체의 모범으로서 수많은 현대인에게 정신의 휴식처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하게 지켜온 정신문화의 향기를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뜻으로 넓게 홍포하면서, 성주사를 훌륭한 수행도량으로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지 취임을 축하하며, 오늘의 공덕이 사부대중 모두의 청안함으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9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